



정교회 한국대교구 2021년 4째주 (1월 24일)

# 정교회 주보



크세니 수녀

루가 제 14주일

성 크세니 수녀

제 8조, 조과복음 11

성 요한 크리소스툼 성찬예배에서

•제 8조 부활찬양송 / 82, A 218

•주일 입당송 / 14, A 42

•수도자 찬양송 / 85, B 267

•성당 찬양송

•주 예수 그리스도 입당 축일 시기송 / 164, B 159

•사도경 : 디모테오 1:15~17 / 봉독서 383

•복음경 : 루가 18:35~43 / 132, B 83

•기타는 보통 주일과 같음



## 제 17회 대교구의회 암브로시오스 대주교 말씀 (2021년 1월 24일(일))



주 안에서의 존경하는 신부님들과 친애하는 협력자 여러분,

자애로우신 주님께, 지난 한 해와 새로운 해를 위해 우리에게 덕을 베풀어주심에 찬미와 영광을 돌리며 무한한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무서운 코로나19 전염병 속에서도 한국정교회를 무사히 보호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까지 정교회 한국대교구의 어떠한 지역성당에서도 성당을 통한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이 전혀 당연한 것은 아닙니다. 주님의 전능하고 위대한 이름을 찬미하고 찬양할 수 있도록 이 시련의 마지막까지 우리를 보호해주시기를 간청하며 주님께 영광과 감사를 드립니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올해 제 17회 대교구의회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지침에 따라 대

면모임을 가질 수 없는 이유로 필요에 의해 우리는 처음으로 온라인 대교구의회를 개최 하였습니다. 전자기기를 통해 의사소통할 수 있는 선물을 주셔서 멀리서도 우리가 서로가 보고, 들으면서 두려움 없이 모일 수 있도록 해주신 모든 선의 후원자이신 하느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특별한 기쁨과 영예를 지니고, 새로운 해에 영적 결실이 풍성하고 대교구의회의 모든 것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길 기원하는 바르톨로메오스 세계총대주교님의 축복과 아버지의 애정을 여러분 모두에게 전달합니다.

오늘 온라인으로 이루어지는 제 17회 대교구의회의 주요 안건들에 대한 보고를 진행하기 전에, 우리의 영적 아버지이신 피시디아의 소티리오스 대주교님을 큰 기쁨으로 환영하면서 인사말을 부탁드립니다.



## 2021년 중심 주제: 마음의 길 - 친교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듣고 서로 도와주며 빵을 나누어 먹고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였다.”(사도행전2:42)

마음의 길 - 친교 : 우리는 2020년에 이 주제를 배우고 실천에 옮길 수 있는 것으로 제정하였습니다. 작년 대교구의회에서 언급하였듯이, 우리의 목표는, 친교의 길을 걸으면서, 그리스도의 교회의 일원으로서 서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실한 관계를 가져야하는 길로 가기위해 우리 각자가 모두 함께 친교를 나누는 노력을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전염병 문제가 우리 사이의 직접적 접촉을 함양하려는 것을 방해했고, 온 세상에서 2020년에 계획된 많은 사업들의 경우처럼 우리의 계획을 뒤집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해서, 이번에는 우리가 매년 새해에 대교구의회에서 제안하는 새로운 주제를 제시하지 않고 작년의 주제를 올해 2021년에도 함양하고 실제로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결정을 하게 된 것은, 작년에 우리가 다른 어떤 때보다 시민들의 자유로운 이동과 직접적인 사람들 간의 친교에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지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비극적인 상황에서 사람들 간의 친교의 결핍을 경험을 통해 잘 깨달았던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가지고 있던 것을 잃었을 때 비로소 그 가치를 깨닫습니다. 전염병을 막기 위한 조치로 봉쇄령을 내린 나라에서는 시민들이 슈퍼마켓, 약국 또는 기본적인 필수품을 구입하기 위해서 집을 나가야할 때도 경찰에게 서면 또는 전자방식으로 신청한 서류를 보여야만 했고, 시민들은 이동의 자유가 얼마나 귀중한지를 깨달았습니다. 당신의 가

족이나 친구가 중환자실에서 죽어가고 있는데 마지막 순간에 곁에서 지켜볼 수 있도록 방문할 수도 없고, 부모나 가족들의 기념일과 축일에 모이는 것이 금지된 것이 서로간의 친교가 큰 가치가 있었음을 깨달을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 심리적 문제들

경제 위기를 포함하여 앞서 언급한 사건들은 불행히도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심리적 문제들을 발생시켰습니다. 특징적인 것은 심리적 문제가 증가함으로 해서 2029년에는 정신과 의사들이 12%까지 더 증가하게 될 것이라고 추정한다는 것입니다

전염병의 창궐이라는 큰 위기의 시기에 우리는 친교라는 선물을 가지고, 우리가 절실히 필요로 하는 모든 이들과 직접적 대면을 통해 친교를 나눌 수 없는 상황에서 전자통신 수단을 이용하여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도록 합시다. 우리 주변에는 혼자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누군가가 자신들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전화나 이메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베풀어 주실 수 있도록 서로가 서로에게 유익을 줄 수 있도록 합시다. 왜냐하면 “모든 이들을 위해서 사는 것 외에 사람을 하느님의 베풀어 만드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요한 크리소스토모스. EPIE 12:94)

\* \* \*

### 영적 문제들

그러나 우리가 경험했고, 또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는, 이런 전례가 없었던 상황은 우리들에게 영적으로 심각한 거리를 두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가장 먼저 경험한 중대한 영적 문제는, 우리가 신자들과 함께하는 공적 예배를 박탈당했고, 아직도

얼마나 더 오랫동안 신자들의 참여 없이 거룩한 예배를 거행해야 하는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신자들이 교회의 성사 생활에 참여하는 것, 특히 성체성혈 성사와 고백성사에 예전처럼 자유롭게 참여할 수 없는 것은 하나의 큰 영적 문제입니다. 또한 교회 안의 모임은 금지되어 온라인 모임으로 대체되었고, 다른 영적 모임, 성서공부, 주일학교 모임, 수련회 등이 모두 온라인으로만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해답을 요구하면서 제기하는 질문은 ‘인류에게 앞으로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전염병의 유행기간 동안 수많은 회사들이 온라인을 이용하면서 인터넷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현재 많은 사람들이 재택근무를 하고 있고, 온라인으로 친교를 나누고, 서로 얼굴을 맞대지 않고 사업을 하고 있고, 미취학 아동 때부터 온라인 원격 교육을 하면서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큰 선물인 인간적 친교를 잃게 될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기계는 노동을 대체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가장 자연스럽고 민감한 대인관계도 대체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코로나19는 조만간에 하느님의 도움으로 언젠가 사라질 것이지만, 코로나19로 인해 발생된 많은 비대면 시스템은 그대로 유지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B.c.(Before Coronavirus)시대를 이야기하게 될 것입니다. 전염병 유행 이전의 시대에 있었던 많은 것들이 A.c.(After Coronavirus)에는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만일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디지털 기술을 올바르게 사용하지 않으면 우리 사회는 비대면의, 불행하게도 인간적 친교가 축소되는 사회로 가게 될 것임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하느님과 인간이 하나의 친교를 이루는 삶을 살아가길 갈망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느님의 모상인 사람으로 하느님과 그리고 우리 동료들과 근본적인 친교를 가지길 바라고 있으며, 또한 유일한 마음의 길이고 하느님의 큰 선물인 의사소통을 수호해야만 합니다. 즉, 우리는 디지털 기술이 인간 본성의 신성함을 파괴하도록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또한 하느님의 큰 선물인 현대 기술을 하느님에 뜻에 따라 사용하도록 배우면 됩니다. 우리 시대에, 우리 사이에, 또한 우리 이웃들과의 사이에 전자기기의 어떠한 모니터의 “벽”이 들어오도록 허용하지 말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어떤 사람하고도 대인관계의 친교에 우선적으로 관심을 가지도록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온라인 기기를 끄고 자기의 시간을 활용해서 배우자, 자녀, 형제, 친구, 동료를 직접 만나는 것인데, 이것이 진정한 사랑의 행위입니다.

최후의 심판 비유 말씀(마태오 25:31~46)에서 “세상 시작부터 준비된 왕국을 우리가 상속 받기” 위해서는 6가지 기본적인 일을 해야 한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6가지 사항을 - 배고픈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른 사람에게 마실 것을 주고, 나그네를 따뜻하게 맞이하고, 헐벗은 사람에게 입을 것을 주고, 병든 자를 돌보아 주고, 감옥에 갇힌 자를 찾아가 가는 것 - 다른 삼자를 통해서 할 수 있다고 말씀하지 않으셨고, 우리가 직접 행해야 한다고 하셨고, 이러한 각각의 행위에는 희생과 개인적 수고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음 주 계속



## 대교구

### ■ 제 17회 대교구의회

오늘 1월 24일 주일 오후 2시에 제 17회 대교구의회가 코로나19 등 상황에 따라 온라인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대교구 소속의 각 성당 의회 구성원 여러분은 꼭 참석하여 우리 한국정교회 발전을 위해 좋은 의견들을 제시해 주시고 같이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 ■ 그리스도인 일치기도회 참여

지난 1월 19일(화) 오후 7시에 NCCK와 천주교가 함께 드리는 그리스도인 일치기도회에 암브로시오스 대주교와 성직자들이 참여하였습니다. 이 기도회 또한 코로나19로 온라인으로 이루어졌으며 대주교께서 인사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일치를 위한 기도는 우리가 계속해서 해나가야 할 사명입니다.

### ■ 온라인 모임

코로나19로 올해 각 지역성당의 모임은 전염병이 사라질 때까지 온라인 시스

템을 이용한 모임으로 할 예정입니다. 주일학교, 청년회 모임인 신데즈모스 그리고 성인들의 단체모임을 온라인으로 하여 멀리서나마 우리의 건강을 해하지 않고 안전하게 교회와 친교를 나눌 수 있도록 모두 노력하여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유튜브 한국정교회 계정에 매주 월요일 업로드 되는 성서공부를 시청하여 영적 양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합시다.

### ■ 책 재판

정교회출판사에서는 매년 새로운 책을 출판하고 있으며 동시에 완판된 책들을 재판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하느님의 도움으로 “신화”와 “대사순절” 2권의 책이 완판되어 재판을 하였습니다. 하느님의 도움으로 정교회의 많은 영적 서적이 한국사회에 널리 읽혀 많은 사람들이 참 하느님을 알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 주간예식

1월 25일(월) 성 그레고리오스 신학자 콘스탄티노플 총대주교

1월 30일(토) 성 대 바실리오스, 성 그레고리오스 신학자, 성 요한 크리소스토모스 3대 교부  
오전 9시 - 축일조과 및 성찬예배

